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이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 조종류 고수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
회현동 은행나무-*퓨전 국악창작그룹 블랙싸인 국악공연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 초등학교-낙산 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 문학관

13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백사실 계곡-*김명남 명창과 조종류 고수의 우리가락 여흥공연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서울시 의회(옛 부민관)-서울시립미술관(옛 경성재판소)-덕수궁(영성문터)-
적선동(옛 적선동 파출소 터)-청계광장-종각네거리(옛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롯데백화점, 롯데호텔(옛 반도호텔, 아서원)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 ①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 ② 서울시 의회(옛 부민관)
- ③ 서울시립미술관(옛 경성재판소)
- ④ 덕수궁(영성문터)
- ⑤ 적선동(옛 적선동 파출소 터)
- ⑥ 청계광장
- ⑦ 종각네거리(옛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 ⑧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옛 반도호텔, 아서원)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점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청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마상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학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불가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서울시 의회(옛 부민관)-서울시립미술관(옛 경성재판소)-덕수궁(영성문터)-적선동(옛 적선동 파출소 터)-청계광장-종각네거리(옛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롯데백화점, 롯데호텔(옛 반도호텔, 아서원)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 본명 정서죽(鄭瑞竹)

▶ 1929년

6월 신의주 중학교 재학 중 신의주고등보통학교 생도 사건으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1930년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가 중학교 졸업 후 도쿄 니혼대학(日本大學) 문과 입학. 재학 중 프롤레타리아신문에 단편소설 '조선의 어린이로부터' 당선

▶ 1932년

대학 중퇴 후 귀국

▶ 1935년

1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콩트 '여자' 발표로 등단

▶ 1935년

7월 조선문단에 시 '도회인에게' 발표

▶ 1936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졸곡제' 가작 당선

▶ 1937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성황당' 1등 당선 등단

▶ 1940년

매일신보 기자 입사

▶ 1940년

10월 조선문사부대(朝鮮文士部隊)의 부대원자격으로 조선문인협회 주최 육군 지원병 행사
참가 후 소감문 '반도민초(半島民草)에 일시동인(一時同人)'을 삼천리에 발표

▶ 1941년

전작 장편 '청춘의 윤리' 발표

▶ 1942년

연구서 '소설작법' 발표

▶ 1946년

장편 '장미의 계절'을 중앙신문에 연재

▶ 1947년

전작 장편 '고원' 발표

▶ 1947년

7월 조선문인협회 주최 '용산 호국신사 어조영지 공역봉사'에 참가

▶ 1948년

장편 '애연기' 발표

▶ 1943년

2월 국민총력 조선연맹이 조선신궁에서 개최하는 연성회 참가

▶ 1943년

4월 일본 남방총군작가 이노우에 고분과 우에다 히로시 환영회참가

▶ 1943년

5월 내선작가 교환회 참가

▶ 1943년

6월 제1회 조선군 보도연습에 참가

친일 문인단체 조선문인보국회 소설회곡부 간사 선임

▶ 1945년

해방 후 중앙신문 편집부장 겸 문화부장 대조 편집주간

▶ 1949년

장편 '도회의 정열' 발표, '청춘산맥'을 경향신문에 연재

▶ 1950년

한국전쟁 시 육군 종군작가단

▶ 1951년

장편 '여성전선'을 영남일보에 연재

▶ 1952년

전작 장편 '애정무한', 장편 '번지 없는 주막' 발표

▶ 1953년

콩트집 '색지풍경', 장편 '산유화' 발표

▶ 1954년

장편 '인생여정' 발표

▶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 걸쳐 서울신문에 장편소설 '자유부인' 연재

▶ 1955년

장편 '민주어족'을 한국일보에 연재, 장편 '월야의 창' 발표

▶ 1956년

장편 '낭만열차'를 한국일보에 연재

▶ 1957년

장편 '슬픈 목가'를 동아일보에 연재, 장편 '사랑의 십자가' 발표

▶ 1958년

장편 '유혹의 강' 서울신문에 연재, 장편 '비정의 곡'을 경향신문에 연재

▶ 1960년

장편 '연가', '여성의 적'을 서울신문에 연재

▶ 1961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위원장, 방송윤리위원, 라이온스클럽 한국A지구 총재, 평북 용천군 장학회 회장, 적십자사 서울시 상임위원등 활동

▶ 1962년

장편 '인간실격' 발표, 장편 '산호의 문'을 경향신문에 연재

장편 '여인백경'을 조선일보에 연재

▶ 1963년

장편 '육망해협'을 동아일보에 연재

▶ 1964년

장편 '에덴은 아직도 멀다'를 조선일보에 연재

▶ 1965년

장편 '노변정담'을 대한일보에 5년간 연재(10권 발행)

▶ 1976년

연작 장편 '명기열전'을 조선일보에 4년간 연재

▶ 1977년

사화집 '이조여인사화' 발표

▶ 1978년

전기 '퇴계소전' 발표

▶ 1979년

수상집 '살아가며 생각하며' 발표

▶ 1980년

전작장편 '민비' 발표, 사회집 '퇴계일화선' 발표

▶ 1981년

장편 '여수'를 경향신문에 연재

장편 '손자병법'을 한국경제신문에 연재(4권 발행)

▶ 1983년

장편 '초한지'를 한국경제신문에 연재(5권 발행)

▶ 1985년

장편 '김삿갓 풍류기행'을 한국경제신문에 연재, 장편 '현부열전' 발표

▶ 1987년

장편 '소설 민비전' 발행

▶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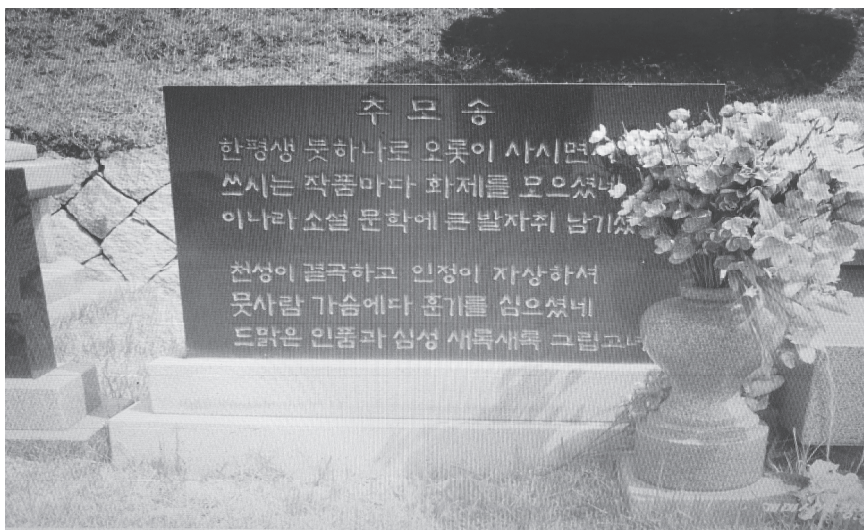
장편 '소설 김삿갓' 발행(5권)

▶ 1989년

장편 '미인별곡' 발행(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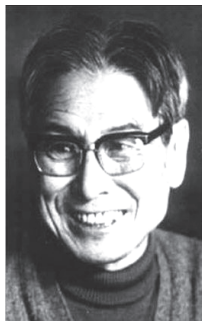
▶ 1991년

10월 19일 만 80세 숙환으로 사망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산 22 정비석 묘지석과 추모비〉

작가 소개



정비석의 소설은 부담 없는 문장으로 관능미를 곁들인 남녀간의 갈등, 소박하고 낭만적인 인도주의의 세계를 그려나간 점에서 대중적 공감을 얻었다. 1935년 1월 매일신보에 콩트 '여자'를 발표로 문단에 등단 후 50여 년간 창작 활동을 하였다. 본명은 정서죽(鄭瑞竹)으로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명은 '상서롭고 길한 대나무'의 기상을 받기를 의미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32년 일본대학 문과를 중퇴하고 귀국하여 창작에 전진하였다. 처음에는 시를 습작하였으나 곧 소설로 전향했다. 한때 매일신문 기자(1940), 중앙신문 문화부장(1946), 대조편집주간(1947) 등의 일을 하며 창작 활동을 했으나 1950년대 초 이후 전업작가로 일관했다. 그는 1936년에 단편 '졸곡제(卒哭祭)'가 동아일보에 입선되고, 이듬해 조선일보에 '성황당'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이 시기에 '해춘부'(1937), '운무'(1937), '거문고'(1937), '애증도'(1938), '저기압'(1938), '눈오는 날 밤'(1938) 등을 발표했다.

농촌에서 홍수로 아내를 잃고 난 뒤 신의주로 옮겨간 안삼 부자가 지게꾼일과 밀수도둑질까지 해서 아내의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담은 '졸곡제', 후미진 산골에서 솥을 구어먹고 사는 현보네의 삶과 그의 젊은 아내 순이를 둘러싼 사내들의 관계를 그린 '성황당'을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정비석의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상세하게 행적이 채록되었다.

1940년대에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종교와 사랑의 문제를 다룬 '제신제'(1940),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청파 선생을 통해 세태의 변화를 그린 '고고'(1940), 설날그믐의 세모 풍경을 특이한 구성으로 묘파한 '한월'(1942) 등을 발표했다. 광복 이후에 그의 창작활동이 본격화되는데 '만월'(1945), '모색'(1946), '운명'(1947), '수난자'(1948) 등의 단편과 '장미의 계절'(1946), '고원'(1947), '도회의 정열'(1949) 같은 연재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1950년대에 들면서도 '청춘산맥'(1950), '여성전선'(1951), '자유부인'(1954), '민주어족'(1954~1955), '산유화'(1955), '홍길동전'(1956), '낭만열차'(1956), '슬픈 목가'(1957), '유혹의 강'(1958), '비정의 곡'(1958~1959), '연가'(1959~1960) 등의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많은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대중적 인기작가로 군림하였다.

특히 당시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자유부인'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부 계층에 흥미하고 있던 퇴폐적 서구 사조를 묘사함으로써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장편 '여성의 적'(1960), '인간 실격'(1962), '산호의 문'(1962), '여인백경'(1962), '욕망해협'(1963), '에덴은 아직도 멀다'(1964), '노변정담'(1965~1969) 등을 연재,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는 현대물보다는 주로 역사물이나 중국 고전을 새롭게 고쳐 쓰는 일에 몰두했다.

'명기열전'(1976~1979), '이조여인 사화'(1977)에 이어 '민비'(1980), '손자병법'(1983), '초한지'(1984), '김삿갓 풍류기행'(198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작가였다. '성황당', '제신제', '자유부인' 등에서 보듯, 부담 없는 문장으로 관능미를 곁들인 남녀의 갈등, 소박하고 낭만적인 인도주의의 세계를 그려나간 그의 소설적 특성이 대중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권영민)



▶ 작품세계

정비석의 작품은 유독 여성에 관한 글이 많다. 정비석이 1965년 대한일보에 5년간 연재한 ‘노변정담’ 중 ‘여인극장’ 책머리 중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자고로 세사(世事)와 국사(國事)의 흥망성쇠의 그늘에는 반드시 여자가 숨어 있었으니,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말하면 ‘탐색의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치만 높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대철학자 파스칼로 하여금 이처럼 갈파하게 만든 그 ‘여자’란 도대체 어떤 생태의 소유자일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 순백의 원고용지 위에 ‘女子’라고 두 글자를 이리도 써보고 저리도 써보고 붓장난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추리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문 글자를 만든 사람은 반드시 남성이라라는 추측이었다. ‘女子’라는 두 글자를 세로로 써 놓으면 단순히 ‘여성’이라는 뜻이 되지만, 같은 두 글자를 가로로 써 놓으면 ‘好’가 되는데 여자를 가로 써놓은 ‘好’를 ‘좋다’라는 뜻으로 제정했다면 그 사람은 남성일시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女’자를 세 개 겹친 ‘姦’자는 간통이니, 간신이니, 간지니 해서 한결같이 나쁜 뜻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만약 한자를 만든 사람이 여성이었다면, 자기네의 동성복수인 ‘姦’자를 그토록 나쁜 글자로 제정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정비석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며 당나라 현종의 양귀비, 나폴레옹의 조세핀, 주나라 유왕의 요부 포사,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 파스칼, 소설가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여, 여자의 특성을 살피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작품으로 썼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그가 발표만 많은 작품 속에 그대로 그려졌으며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신문, 경향신문, 영남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끊이지 않는 작품 발표를 하며 사망하기 전까지도 왕성한 집필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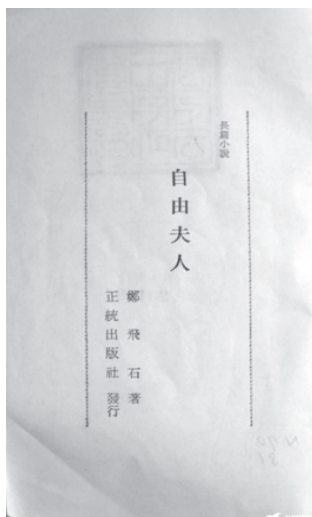
작품목록

간호장교	도회의 정열	삼대
갈대와 가티	동경	상처기
강태공	동녀기	색지풍경
개와 꿩이와	동정녀	서북풍
개척전사	만월	서한
거문고	명기열전	석별가
경품권	명성황후	성황당
고고	母の言らひ	세기의 종
고원	모상	소나무와 단풍나무
광명	모색	소녀의 주검
국화진열	미인별곡	소설 김삿갓 1~5
궁심	민비전	소설작법
귀불귀	민주어족	손자병법
귀향	바다의 소야곡	수난자
그 여자의 반생	박꽃	슬픈 목가
금단의 유역	반도작가단편집	슬픈 추억
김삿갓	방조기	시일
꽃 순례	번지없는 주막	실패한 청춘
나락	비밀	아내의 항의문
남아출생	비정의 곡	암야행로
낭만열차	사랑의 십자가	애연기
냉혈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애정
노변정담	사향가	애정무한
눈물	山の鵲	애증도
눈오는 날 밤	산유화	에덴은 아직도 멀다
단편집	산정무한	여성전선
대기	삼국지	여인극장

여인백경
여인의 행복
여인이태
여자
연가
연락선
연애노정
요마
욕망해협
운명
운무
월야의 창
유혹의 강
이 분위기
인간실격
인생 제1과

인생여정
자매
자유부인
잡어
장미의 계절
저기압
제3의 우정
제신제
조춘
줄곡제
청춘패도
청춘산맥
청춘의 윤리
초로부부
초록의 변
초한지

추야장
춘희
파계승
파도
한월
해춘부
향로
호롱불
호색가의 고백
훈명
홍길동
化の皮
화풍
황진이
훈풍



작품의 시대적 배경

1950년대는 한국전쟁이 던진 가공할 폭력으로 문학사의 소외시대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일상은 지속되었고 오늘날의 베스트셀러를 능가하는 가공할 작품이 생산되고 있었다. 양적으로 볼 때 대중문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대표적인 작품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다.

대중문학의 공과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1950년대적 문학적 중언이며 오늘날까지 그 파장을 지속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문학 텍스트이다(환상성과 문학의 미래, 구보학회) 정치적으로 볼 때 1950년대는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 연이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국가의 헤게모니가 시장과 사회의 헤게모니를 압도하는 친미, 반공의 시대였다. 해방에서 군사혁명에 이르는 15년의 이 시기는 유교주의자, 민족주의자인 지도자가 이끄는 고집불통의 시대였다.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인 남편과 서양의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던 시대상의 충돌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세인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자유부인'은 당초 150회에 계획하였으나 높은 인기로 힘입어 213회까지 늘려 연재가 되었으며 연재가 끝나자마자 서울신문 가두판매량이 5만2000부나 줄어든 정도의 당대 최고의 인기작이었다. 신문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7만부가 팔렸고 총 14만부나 팔려나갔다. 극단 신탁에 의해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화 되어 상연되자 28일 동안 13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었다. (서울신문 50년사, 서울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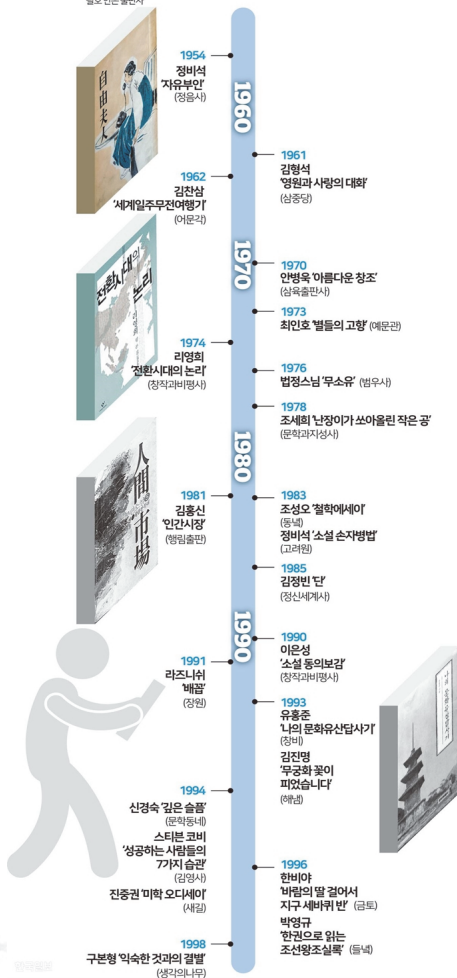
근엄한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대학생을 부둥켜안고 못 남성들과 다방이나 그릴을 드나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자유부인'은 한 시대를 풍미하듯 흥미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소설이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은 서울대 교수 황산덕씨가 이 소설이 대학교수를 모독했다는 글을 써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전에는 문인, 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독자까지도 투고를 하거나 직접 작가에게 글을 보내 참여했다. 탈선을 조장한다는 여성의 편지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냐는 목사의 글도 있었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작품이 전 여성을 모독한게 아니냐며 시경에 고발을 했다. 정비석은 치안국과 모 기관에 끌려가 남한의 어두운 면을 그린 것은 북한으로부터 창작금을 받는 등으로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취조를 받았다. 폐쇄적이고 억눌려 있던 성문화가 해방, 특히 미군이 참전한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같이 '자유부인'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을 감각적으로 엮어나간 대중작품이다.(20C 한국사, 역사문제연구소)

20세기 한국의 주요 베스트셀러

출처: 안은 출판사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중학을 중퇴하고 해병대에서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군에서 전역한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을 무대로 해군 헌병대위를 사칭하며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하였다. 흰칠한 키의 미남자였던 박인수는 헌병으로 복무시절 익힌 사교춤 실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피해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들이었으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라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박인수의 주장은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세상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수차례의 피난 행렬도 성 도덕을 바꾸는 데 기여했지만, 수십만 미군의 존재는 어쨌든 성 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군이 있는 곳에는 '유엔 마담', '유엔 사모님', '양공주', 심지어 '양갈보'라는 말을 들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한 자료에는 1952년 5월 30일 현재 '유엔 마담'이 2만 5479명으로 나와 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자료에는 검진을 받는 여성이 단서 2만 997명, 위안부 22만 7387명, 접대부 2만 4950명, 밀창(密娼) 2만 6623명, 기타 1만 532명으로 나와 있다.

미군과 함께 수입된 새 풍속도가 댄스였다. 한국은 예전에는 남녀가 껴안고 추는 춤이 없었다. 그런데 1950, 60년대에는 댄스를 모르면 문화에 뒤떨어진다는 농담도 나올 만큼 퍼져갔다. 여기저기 무허가 강습소가 생겨났다. 경찰에 의한 비밀댄스홀 습격도 종종 보도되었다.

전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미군 GI 문화유입으로 퇴폐적인 욕망의

공간으로 댄스홀이 확산되어 국가에서는 댄스홀을 규제하였다. 국가재건과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일상에서 탈출구가 봉쇄된 여성들의 현존을 확인하는 공간, 일상의 탈출구로 댄스홀, 카바레, 나이트클럽, 아르바이트홀 등의 다양한 댄스홀이 유행이었다. 그 중 반도 호텔 9층의 ‘황조카바레’가 유명했다.



〈반도호텔 9층의 황조카바레〉

처첩 간에 일어난 사건 재판에도 여성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1959년 전 부흥부차관 부인 간통죄 사건에도 여성들이 대거 몰려들어 피고인 여성을 성원했는데, 1955년에 일어난 박인수 사건도 여성 인파가 재판 때마다 쇄도해 재판이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박인수 사건은 춤바람이 난 여자 70여 명을 짧은 기간에 한 남자가 간통했다는 것도 흥미를 끌게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당당하게’ 댄스홀에 나오는 여자 중에 진짜 처녀는 없다고 단언하고, 춤추고 나면 4~5명씩 여관에 가는 것은 다반사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었다. 상대 여자 중에 이화여대생도 있어 더욱 화제였는데, 그만큼 여대생이 드물어 대단하게 보이는 시기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1심에서 재판장이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

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간음죄 무죄선고를 내린 판결은 더욱더 입에 오르내렸다. 폐쇄적이고 억눌려 있던 성 문화가 해방, 특히 미군이 참전한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히 변해가고 있었다.



〈영화 '자유부인' 포스터와 박인수. 1956년 한형모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대학생과 교수 부인의 포옹과 키스신은 잘라내고 방영되었다〉

자유부인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등장인물

▶ 오선영

여자 주인공으로 장태연 교수의 부인

35세, R여자 전문대학 재학시 장교수에게 한글학을 배움

장교수의 학자적 인격에 감동 연애 결혼, 아들 한 명

▶ 장태연 교수

여자 주인공 오선영의 남편, 42세

한글 철자법 간소화 운동 참여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

자유민주세상 부르짖음에 아내에게 방임주의를 허락하고 박은미와 로맨스를 꿈꾸나

박은미는 다른 남자와 결혼

▶ 신춘호

오선영 옆집에 하숙하는 대학생

O대학 영문과 학생, 학교는 나가지 않음

춤추려만 다닌다는 소문만 무성

아침부터 머리에 뽀마드 바르고 머리를 짝 갈라 붙이고 곤색양복, 빨간넥타이,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바람둥이

연애도 공부다, 문학적 감흥에는 최고의 영감을 주는 것으로 괴테도 연애를 소재로

많은 걸작을 남겼다 주장

▶ 최윤주

모 기관 국장부인, 외간남자 백광진과 바람 피우고 임신

종로3가 영생의원에서 낙태수술, 백광진의 사기행각을 알고 자살

▶ R여사

명문탁설이 장강유수와 같음 (집에서 식모와 아이에게는 잔소리뿐)

▶ 세무사 마누라

남편 봉급은 700환 밖에 되지 않는데 3000환이 넘는 송이버섯 운운하는 여자

▶ M은행 중역부인

쇠고기 너비아니 선호하는 남편을 앞세워 가세 자랑

단골 육고기집에 부탁, 조카와 요릿집 동업 10만원 자금대고 원조

▶ 외교관 부인

손님접대로 잦은 외식

▶ 안경잡이 부인 - 공무원 부인 - 고리대금업

▶ 농림관계 부인

남편의 업무에 대한 영향으로 배급제도와 자유판매 정책을 거론

▶ 부인회 선전부장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한옥순

36세에 남편이 학교후배와 바람을 피고 씨앗을 봄

▶ 박은미

미군부대 영문타이피스트

장태연 교수에게 한글 철자법 강의를 배우기 원함

▶ 오병헌

오선영의 오빠, 정치가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장교수에게 중학교 교장을 제안, 선거 낙선

▶ 한태석

오선영이 다니는 파리양행 주인 이월선의 남편으로 기회주의자

▶ 백광진

최윤주를 이용 사업자금을 차용 사기, 한태석에게도 차용
허풍장иро 이월선 여사와 외상거래가 많음

줄거리

평범한 대학교수 부인 35세 오선영은 어느 날 R여대 동창 중 각계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부인들과 실업계의 중역 부인으로 구성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화교회’에 뽑혀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남편 장태연 교수는 소장파 한글 학자로 한글에 관한 일이라면 지대한 관심을 가진 42세의 가장으로 집안일에는 별 관심 없이 오직 서재에 파묻혀 지내는 남자다. 오선영은 모임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게 된다.

대문을 나섰다. 그에게 있어서는 대문 밖은 자유의 세계였다. 늦은 가을 하늘이 시원스
럽도록 개였다. 솜바대기 같은 하얀 구름이 한가로이 떠돌고 있는.... 가정을 가진 여자
가 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는 것은, 남자들로 치면 세계 일주 유럽 여행
을 떠나는 이상으로 호화로운 일일런지 모른다. 일체의 가정적 구속을 떠나서, 창공에
나는 솔개미와 같이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이렇게 집을 나선 오선영은 화교회 모임장소인 아서원으로 향하던 중 옆집에 하숙하고
있는 무슨 대학 영문과 학생 신춘호를 만났다.

학교에는 별로 나가지 않고 밤낮 춤만 추러 다닌다는 소문이 났다. 머리를 뽀마-드로
짜 갈라 붙인데다가, 곤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꼭 뽑고, 어깨에는 카메라까지
메고 있었다...

세종로로 나와 시청앞 쪽으로 걸으며 오선영은 젊은 대학생에게 미인이라는 말을 들으

며 청춘을 회복한 것 같아서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연애에 대한 신춘호의 이야기를 듣는다.

연애도 공부랍니다. 도대체 문학이란, 감흥이 생겨야 비로소 시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하는 법인데, 그런 문학적 감흥을 일으키는 데는 연애가 제일이거든요, 괴테가 그토록 많은 걸작을 남기게 된 것도 연애의 덕택이죠...

이런 연애론을 들으며 화교회 장소에 도착하여 회비 1000환을 지폐로 쪽쪽 뽑아 놓는 동창들과 같이 단골가게에서 일부러 1000환 지폐로 바뀐 한 장을 내놓았다. 호화찬란한 회장에는 마치 의상과 화장술 경연대회에 나온 듯한 회원들을 보며 오선영은 대학교수 부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영상이 불량해 보이는 듯 느꼈다. 오선영은 회원 중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깨달았다. 사실 허위와 허영이 넘치는 분위기였음에도 오선영이 경험하지 못한 음식과 돈과 정치와 파티와 댄스 화제에는 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난의 비애만 느끼고 회비 10000환에 가슴을 조이는 팔자를 원망하게 된다. 오선영은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남편의 압제를 받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어!”라는 친구 최윤주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한편 남편 장교수는 미군 부대의 영문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박은미라는 아가씨의 연락을 받고 뛰는 가슴으로 약혼시계를 전당포에 잡히고 돈 3000환을 지니고 만나러 나가게 된다. 약속장소를 종로 이십오시다방으로 정하자고 하니 아내가 일하는 파리양행 맞은편이라 마누라에게 발각되기를 경계하여 소공동 오호실 다방으로 정한다. 박은미와 미국공보원에서 ‘미녀 엠마’라는 영국영화를 같이 보기로 하고 저녁을 같이하며 박은미와 동료들에게 한글철자법을 가르치기를 정하고 박은미와 자주 볼 생각에 어깨춤이 절로 나올 것 같았다.

가정이나 부부관계니 하는 세속적인 계급을 초월해서 오로지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사람의 영원한 모습인지도 모르지! 남녀관계에도 종교적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미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불건적인 장교수의 생각이 아내 오선영의 취직을 허락함으로 진보적인 남자로 비춰지

게 된다. 이렇게 취직을 하여 명동입구에 있는 ‘파리양행’에 나가게 된 오선영은 국회의원 오빠 오병헌이 남편 장교수에게 선거 운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며 정치가들의 생활을 “자기네는 밤낮 특선 전기에 곰국이나 끓여먹고, 찹차를 타고 놀러 다니거나 하고…”라며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를 욕하다 취직을 허락받기 위한 자기가 한 행동을 되돌아본다.

오선영은 남편 몰래 댄스를 배우며 옆집 대학생 신춘호의 방에 몰래 숨어들어 댄스 연습을 하곤 한다. 그러면서 신춘호의 여자친구이자 오선영의 조카인 명옥 이야기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명년 봄에는 미국에 간다나요. 미국에 갈 준비로 영어 회화를 배운답시고 외국사람들하고만 놀러 다니니…”라며 요즘 세태를 보여준다.

오선영은 신춘호의 품에서 탕고를, 장태연 교수는 서재에서 박은미의 환상에 잠긴 현실을 보여준다. 오선영은 파리양행에서 일을 핑계로, 장태연 교수는 한글강습회 핑계로 늦은 귀가가 반복되며 가정은 점점 난관에 봉착해 가고 있었다. 오선영은 점점 댄스에 빠져들고 친구 최윤주의 이혼소식과 신춘호와 댄스홀에 갈 생각, 한태석과 화교회 파티에 출석할 일, 백광진이란 사나이에게 초대받은 생각에 몰두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풍경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화려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언제나 여왕처럼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 공상속의 오선영 여사는 마음만은 칠색 무지개를 타고 아름다운 꿈속을 자유자재로 헤매일 수 있었다.

현실을 불행하게 생각하며 가장 공상맞고 고답지근한 한글학자의 마누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불공평한 현실로 생각했다. 옷 한 벌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잘못된 출발이었던가? 차라리 최윤주 모양으로 이혼을 해버릴까? 차라리 죽어 주거나 했으면...아, 자유가 그림구나! 이혼까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머리를(생각을) 좀 돌려줄 수는 없을까? 당신은 대체 나하고 몇 퍼센트나 결혼을 하신 거예요?

부부생활에도 부처님처럼 범연한 남편에게 중년 부인의 육체를 정신적인 존경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불만이 쌓여간다. 불만을 토로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장교수가

아삭할 뿐이다. 아들 경수는 아버지에게 엄마의 변화를 알리고 장교수는 그런 부인을 용서 할 수 없었다. 점점 가정에 뜻이 없어진 오선영은 아이들도, 남편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리만 나다니게 되었다. 최윤주는 백광진과 온천장으로 주말여행을 가고, 집에만 지리리 못나게 처박힌 자신을 한탄한다. 통행금지가 다 되어 돌아온 선영에게 장교수가 나무라자 선영은 더 엇나간다.

아내가 이혼을 제의한다고 별로 겁날 일은 아니었다. 남자 하나에 여자가 두 트럭씩 돌아간다는 이 세상이니 비록 나이가 사십이 넘었기로 재취를 못할 걱정은 추호도 없었다.

장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는 오선영 자신을 위해서이다. 서른다섯 넘은 여자가 이혼해야 재혼이나 일신을 망치기 십상이고 둘째는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셋째는 장태연 교수 자신을 위해서다. 좌악의 근원은 우리나라 사회현상에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으로 민주사상을 받아들일만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혼란이 생겨난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남녀가 불행에 허덕이게 되었고, 현모양처들이 자유라는 미명으로 방종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릇된 민주사조로 미풍양속이 얼마나 문란해 졌던가. 무엇보다 대학교수로 진정한 민주가정을 건설하기위해 참기로 했다.

선거로 오선영과 장교수는 의견이 갈렸다. 선영은 남편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고 하고 장교수는 자유의사로 투표해야만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선영은 남편에게 민주주의자가 되려거든 춤부터 배우라 하며 자유의 기쁨을 느낀다.

파리양행에 나가는 오선영은 주인 이월선 여사가 그의 남편 한태석과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화교회 멤버 중 한 사람이 여는 창경원 안 수정궁에서 열리는 댄스파티 소식을 듣고 파트너로 한태석을 생각한 오선영은 설레었다. 장교수는 댄스에 대하여 “나무와 나무끼리 마주 부벼도 전기와 열이 나는 법인데 남녀 간에 서로 살을 마주대고 부비는데, 그게 무사하리란 말인가? 젊은 사람들이 댄스를 어째서 그리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모두 까닭이 있었군.”하며 해괴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선영은 우아한 한복으로 온갖 멋을 내고 기차역으로 나가 한태석을 기다리다 부인

이월선을 발견하고 질투와 화가 동하였다. 기어이 한태석을 유혹하기로 하고 구두닥이에 게 부탁하여 편지를 전달하고 수정궁 댄스파티를 위하여 종로 춘향다방에서 기다린다. 다방에 나타난 한태석과 창경궁으로 향하며 백광진에게 빌려준 돈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한태석에게 돈을 빌려 파리양행 금고를 채웠던 일을 감사했다. 수정궁에서 만난 최윤주와 백광진을 한태석에게 인사시키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태석은 오선영을 이끌어 인생을 엔조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며 가회동의 어느 솟을대문이 있는 간판도 없는 호텔로 들어갔다.

오선영은 황홀하기도, 불안하기도 한 마음을 감추고 가정과 아이를 버리고 이혼까지한 최윤주도 있는데 하룻밤이야 하며 한태석과 침실로 향하는데 뒤를 밟고 숨어 있던 한태석의 부인 이월선에게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주먹세례를 받게 되었다. 정신없이 도망친 오선영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수정궁 댄스홀 파티에 오여사가 가고 집에는 아이들만이 있어서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본 장교수는 자기가 생각한 방임주의라는 것을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인의 타락을 믿기 어려웠으나 부인에게 배반감을 느꼈다. 그러나 박은미의 결혼 청첩장을 받아들고 또 한 번 놀란 가슴으로 자기의 사랑을 잃어버림에 눈물을 흘린다.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며 점점 흥분이 되어가고 아침에 돈 만환이나 들고 댄스파티에 간 마누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고가 났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강까지 하며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집에서 쫓겨난 오선영은 갈 곳이 없었다. 어제까지는 당당한 대학교수 부인이던 자기가 거리를 방황하는 유랑녀의 신세가 될 줄 몰랐다. 남편이 위대해 보이고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어 보기를 생각해보기도 하며 어디로 가나 막막했다. 집을 나온 가정부인이 이렇게 갈 데가 없을 줄은 몰랐다. 아이들 생각과 남편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정에 대하여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신문에 난 한글 간소화에 관한 문교부안에 반대론자인 장태연 교수의 담화가 실렸고 한글 간소화 문제는 마침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한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의 사당으로 가서 남편의 발표를 보며 훌륭한 남편임을 다시 깨닫고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다 남편을 만나게 되고 “자, 집으로 갑시다!”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그리운 옛 품으로 돌아간다.

영화 '자유부인'

한형모 감독의 1956년 영화 '자유부인'이 상영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키스신 때문이었다. 최초의 키스신이 나온 영화는 1954년 한형모 감독의 반공영화 '운명의 손'이었으나, 논쟁은 1956년에 역시 한 감독의 작품인 '자유부인'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교수 부인과 대학생의 키스신 및 포옹 장면 등이 사회 도덕 기준과 너무도 어긋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영화는 교수 부인과 대학생의 러브신을 들어내고 상영되었다.

키스신에 대해 한 신문은 일부 국회의원과 가정주부들이 반대했지만 찬성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미스코리아를 선발하는 등 '진취적'인 신문이었던 한 국일보에 실린 1956년 11월의 한 칼럼에는 "외국 영화에서 키스를 자주 한다고 한국 영화에서도 이성끼리 만나면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일 것이다... 풍기문란한 것도 안 됐지만 갓 쓰고 댄스 하는 류의 작품을 만들어도 가관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성 문화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955년에 이강천 감독이 만든 영화 '피아골'이나 4월 혁명기에 나온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자유부인'과는 다른 이유로 둘 다 상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전자는 지리산을 무대로 활동한 빨치산의 사상투쟁과 빨치산으로부터의 탈출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했는데, 빨치산이 "위대한 우리 영도자 김일성 장군"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장면 정부 말기에 상영된 '오발탄'은 월남한 늙은 어머니가 실성하여 "가재"라고 외친 것이 "북으로 돌아가자"로 해석될 수 있고, 너무 어렵게 현실을 그렸다는 것이 재검열 이유였다.

1950년대에는 극장·당구장·다방이 3대 문화시설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황량한 시기였다. 대학생이나 청년 실업자들이 극장에 가 미국 서부영화를 보는 것이 문화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영화가 조금씩 발을 내밀었고, 수작도 나왔으나 당국은 저열한 반공의식으로 검열의 칼을 들이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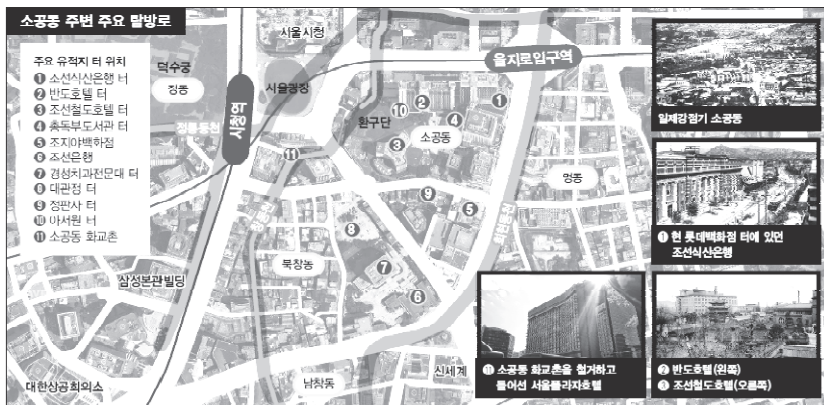


〈1956년 작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속 키스장면과 포스터, 여주인공 오선영으로 분한 김정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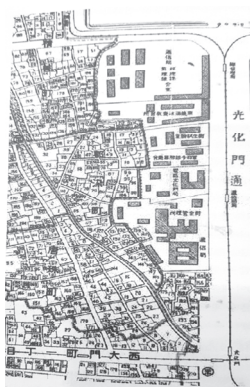
〈1981년에 리바이벌된 81 자유부인에는 윤정희와 최무룡이 출연했다.〉

▶ 소설과 영화 속 장소



적선동 오선영 집

경복궁 서쪽 영추문 건너편에서 세종문화회관 뒤쪽 서울 경찰청에 이르기까지의 동네로 인왕산에서 흘러내리는 백운동천을 따라 주택지가 조성되어 1939년 일제의 도시구획사업과 주택정비사업으로 생활한옥주거단지가 만들어진 동네다.



부민관(현 서울시 시의회)

1935년 경성부가 현재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에 세웠던 부립극장으로 강연화,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할 만한 공연장의 필요에 따라 경성전기회사의 기부금 62만원으로 세운 극장이다.

해방 후 미군정이 임시 사용하다 1949년 서울시 소유가 되었고 1950년 국립극단 창단으로 국립극장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 후 1954년 6월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소설과 영화 속 부민관은 국회의사당 시절이었다.



반도호텔

조선산업 분야의 36%를 소유한 한반도 최대재벌이자 일본 10위권에 든 자본가 노구치 시다가후가 1930년대 조선호텔을 찾았다가 허름한 점퍼와 당고바지 차림으로 문전 축격을 당했다. 이에 화가 난 노구치가 황금정 부근 현재 롯데호텔 부지 2000여평 토지를 매입, 조선호텔보다 높은 연건평 6000평 8층 높이의 건물을 1938년 완공하여 조선빌딩이라고 하였다. 건물 5층에(조선호텔높이)에 사무실을 두고 내려다보았다고 한다. 1-5층은 회사 및 임대사무실로 쓰고 6-8층은 반도호텔로 사용 ‘호텔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1950년대 한국전쟁 때 UN군 전쟁참전 축구 뉴스센타로 사용하였고 1954년 10월 전쟁 후 일본 풍을 제거 서양식으로 개보수하여 개관, 1950년대 후반 한국인 이용 가능하였다. 809호는 이기붕 국회의장이 사용하였고 제2공화국 당시 장면 국무총리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반도호텔은 한국 자본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외국 상사들의 사무실이 밀집한 경제공간이며 9층의 스카이라운지 댄스홀은 서울의 대표적 유흥공간이었다. 1973년 4월 롯데호텔 사업허가로 매각되어 1974년 10월 건물이 철거되었다.

아서원

1907년 산동성 복산현 출신의 서광빈에 의해 설립되어 1970년 송사로 문을 닫을 때까지 약 60여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화교경영요리점이다. 조선호텔과 반도호텔 사이의 땅 460여평에 4층 높이의 붉은 벽돌 건물로 총 수용건물은 9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는 근처 롯데백화점 주차장 자리에 조선공산당본부가 있던 곳으로 미군정청이 공산당세력을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던 ‘정판사 사건’이 발생한 곳. 아서원 2층에서 1925년 창립회를 개최하였다. 아서원은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화교 경영 중화요리점으로 유명 정치인과 경영인들의 회합장소로 많이 쓰였다. 1960-70년대에는 주요 경영인의 회동 장소로 많이 쓰였으며, 재벌가 며느리가 신부 수업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다.

경성재판소과 영성문

1920년 후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과정에서 등장한 과도기 현상의 하나가 이혼이었다. 라디오, 신문이 보급되면서 외국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허정숙, 김일엽, 박인덕, 김활란 등 지식인층 여성들이 여성 계몽운동을 추진하면서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혼이 등장하고 1930년에 가서는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될 만큼 이혼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성재판소가 1945년 해방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다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고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제가 경운궁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오늘 날과 같은 길이 형성되었는데 1920년경 덕수궁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새 담장과 도로가 만들어졌다. '영성문이 헐리기는 작년 여름의 일이다. 지금은 그 영성문 자리에서 남쪽으로 정동까지 탄탄한 신작로가 새로이 뚫려 있다'(1921년 7월 25일 동아일보 기사) 이 영성문 신작로가 오늘의 덕수궁 길이다.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의 판결 후 이 고개길을 넘어 새문안 길로 들어서는 일이 많아 이 길을 걸으면 연인이 헤어진다는 설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서울시청별관, 서울시 시립미술관, 미국대사관저, 구세군중앙회, 덕수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1930년대 경성재판소〉



〈1905년 영성문〉

동화백화점

1930년 10월24일 개업한 미쓰코시 경성점을 시초로 하며, 해방 이후 1945년에서 1963년까지 동화백화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1963년 삼성그룹으로 흡수되어 상호를 신세계백화점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백화점 중 유일하게 본점의 옛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백화점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의 PX 매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화백화점(옛 미쓰코시백화점)〉



〈1930년대 화신백화점(위)과 신신백화점(아래)〉



〈한국최초의 유리 아케이드 신신백화점 내부〉

참고자료

- ‘자유부인’ 정비석 지식을 만드는 지식사
- ‘한국 현대 생활 문화사’ 창비
- ‘서울은 어떻게 계획 되었는가’ 살림출판사
-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 한울
- ‘식민적 근대성과 한국영화’ 소명출판
- ‘여성의 정체성: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책세상
- 국가기록원 1950년대 사진
-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서울 기획연구 4 서울역사 박물관
- 대경성부대관 사진
- ‘여인극장’ 1,2,3 정비석 고려원
- ‘환상성과 문학의 미래’ 구보학회
- ‘20C 한국사’ 역사문제연구소
- ‘영화로 보는 불륜의 사회학: 자유부인에서 바람난 가족까지’ 살림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강영진



1955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군인 이셨던 부친을 따라 어려서부터 많은 도시를 옮겨 다니며 성장하였다. 대학에서 신학과 기독교 문학을 전공했고 직장 및 외국생활을 통해 사회 봉사과 참여의 중요성을 느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도사, 궁궐길라잡이, 생명의 숲 자원활동가로 각종 봉사 활동과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었다.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에 합류, 서울미래유산투어 해설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은 내일의 역사이며, 내가 서 있는 순간이 역사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부하며, 나누고 전달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여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